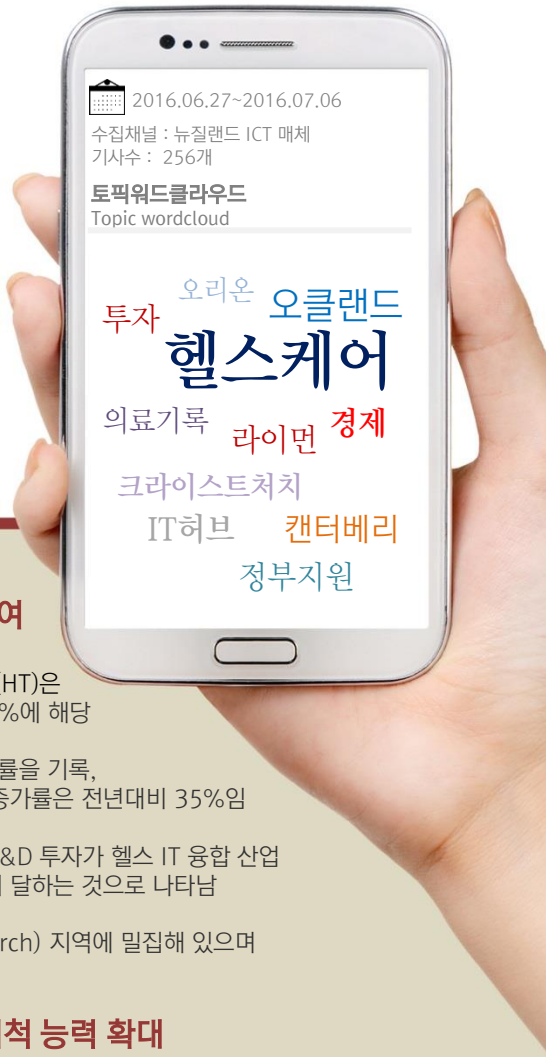
ICT산업융합 | 오늘의 토픽

뉴질랜드 헬스 IT 융합산업,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2016.07.11



의료보건기술산업(HT), 2015년 뉴질랜드 GDP 7.5% 기여

헬스 IT 융합산업과 의료장비 산업으로 이루어지는 뉴질랜드 의료보건기술산업(HT)은 지난해 약 1조 5천 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5년 뉴질랜드 GDP의 7%에 해당

특히 헬스 IT 융합산업의 지난 해 매출은 3천 713억 원으로 연 평균 5.5% 성장률을 기록, IT 산업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헬스 IT 융합 기업들의 평균수입 증가률은 전년대비 35%임

New zealand Technology Review에 따르면, 민간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가 헬스 IT 융합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지난해 헬스 IT 융합 부문 R&D 투자금액은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헬스 IT 융합 주요 기업들은 오클랜드(Auckland)와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지역경제에 각각 약 1조 99억 원, 약 382억 원를 기여하고 있음

정부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 개척 능력 확대

뉴질랜드는 2015 글로벌 혁신지수(GII)에서 투자자보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스콧 애럴(Scott Arrol) 뉴질랜드 헬스 IT 연합(NZHIT) 의장은 국가적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을 조성해주는 덕분에 현지 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을 꾀할 수 있다고 분석함

뉴질랜드 헬스 IT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나선 지는 올해 기준 15년 되었지만 지난해 헬스 IT 산업 수익 중 46%가 수출을 통해 창출될 정도로 성장했으며 특히 건강정보학(health informatics)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 하고 있음

수출관점의 시사점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및 협력 관계 활발… ICT 부문은 기술 협력 방식의 시장진출이 유리

현재 뉴질랜드 내 IT 투자 증가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기술협력방식으로 시장진출하는 것이 유리함. 진출 사례로는 ㈜한국스마트카드(T-money)가 현지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회사 스내퍼(Snapper)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선불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한 바 있음

참고문헌

1. Health technology contributes &1.3 billion to economy 2016.06.22 Scoop Business
2. Canterbury's time to shine in New Zealand's tech economy 2016.06.27 biz EDGE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CONEX)임을 밝혀야 합니다.

CONEX